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msyoon@si.re.kr

얼마 전부터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고령화가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 측면이 있다. 본문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정의 및 문제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화란?

고령화에 대한 정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65세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률은 없다. 기초노령연금 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는 대상자를 65세 이상이라고만 정의할 뿐, 이들이 노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의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1)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및 박사
- 현)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2012),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2013)

유엔에서는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7%미만일 경우 청년사회, 7%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규정하고 있으며, 14%미만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1%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인구 변화의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으로써,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그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젊은 층의 도시이주 현상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2.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예전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환갑잔치를 열고 축하해주었지만, 요즘은 70세에 칠순잔치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수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현재 노인이 몇 세까지 생존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실정이다. 평균 수명 추계를 살펴보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평균 6년을 더 생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평균수명

| | | (단위: 세) | | | | | | | | | | | | | | |
|-----|------|---------|------|------|-------|-------|-------|-------|-------|-------|-------|-------|-------|-------|-------|--|
| 구분 | '71 | '81 | '91 | '01 | 2003 | 2005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2035 | 2040 | 2045 | 2050 | |
| 남 자 | 59.0 | 62.3 | 67.7 | 72.8 | 73.89 | 74.84 | 76.17 | 77.23 | 78.22 | 78.58 | 79.18 | 79.59 | 80.02 | 80.33 | 80.67 | |
| 여 자 | 66.1 | 70.5 | 75.9 | 80.0 | 80.80 | 81.52 | 82.60 | 83.59 | 84.41 | 84.86 | 85.22 | 85.60 | 85.95 | 86.27 | 86.59 | |

출처: 통계청, 장애인구특별추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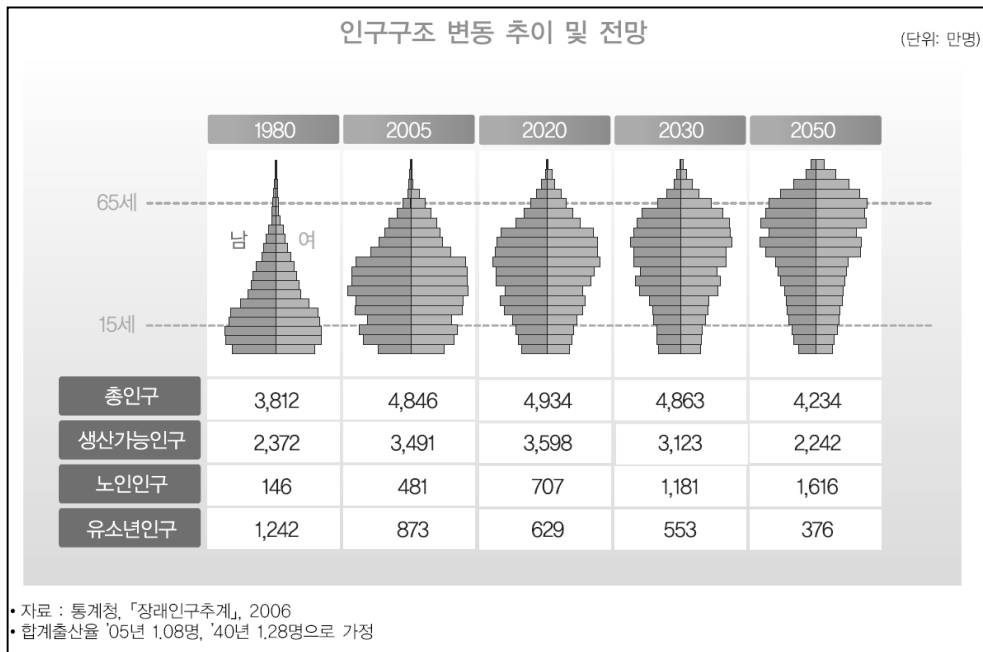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2012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치인 2.1명보다 낮은 1.23명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통계청.2012).

[표 2]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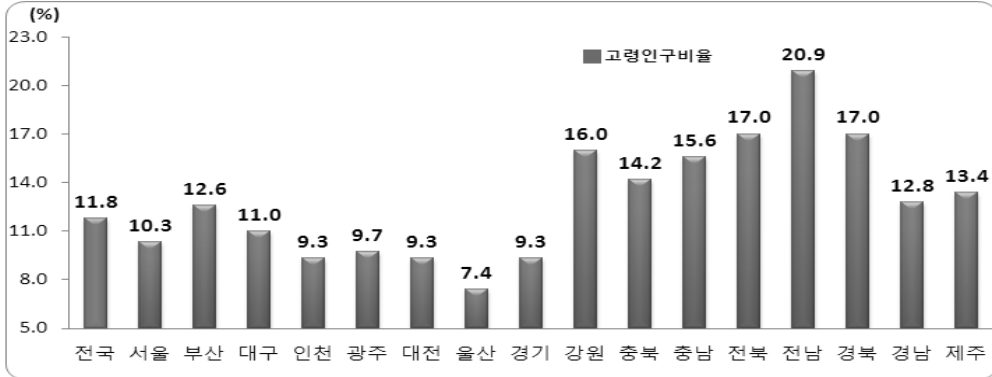
| | 1970 | 1990 | 2000 | 2012 | 2020 | 2030 | 2040 | 2050 |
|--------------------|-------|-------|-------|-------|-------|-------|-------|-------|
| 총인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0~14 | 42.5 | 25.6 | 21.1 | 15.1 | 13.2 | 12.6 | 11.2 | 9.9 |
| 15~64 | 54.4 | 69.3 | 71.7 | 73.1 | 71.1 | 63.1 | 56.5 | 52.7 |
| 65세 이상 | 3.1 | 5.1 | 7.2 | 11.8 | 15.7 | 24.3 | 32.3 | 37.4 |
| 65~74세 | 2.3 | 3.5 | 4.9 | 7.1 | 9.0 | 14.6 | 15.8 | 15.3 |
| 75~84세 (75세 이상) | (0.8) | (1.6) | 2.0 | 3.8 | 5.1 | 7.2 | 12.4 | 14.4 |
| 85세 이상 | - | - | 0.4 | 0.9 | 1.6 | 2.5 | 4.1 | 7.7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그림 1]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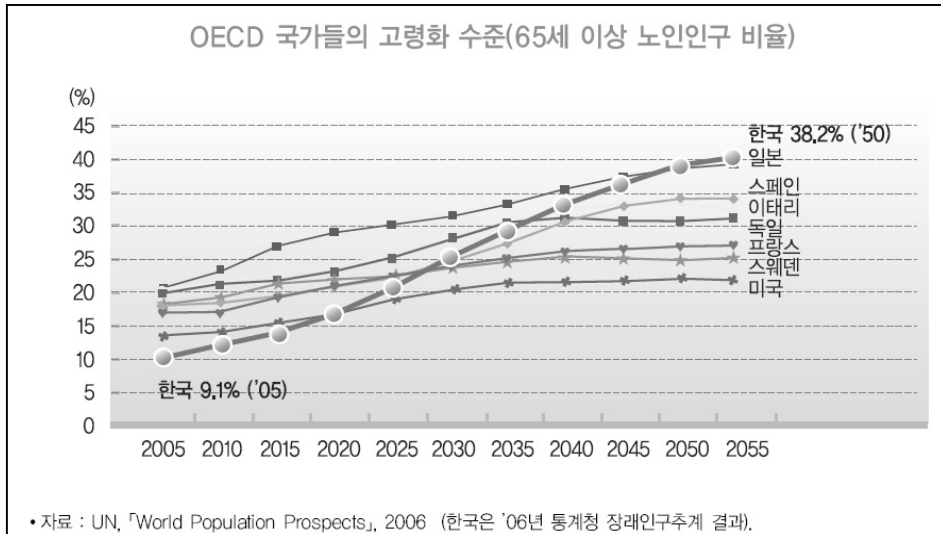
이러한 인구추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종모양이 아닌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인구구조는 노인인구가 적고 생산가능 인구 및 유소년 인구가 많아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역삼각형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생산 활동이 어려운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인구구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통계청, 2012)

또한 2012년 시도별 고령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들의 고령인구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이 고령화문제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보다는 고령화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으며, 인구 추계상으로 볼 때,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보건복지부, 2012)

3. 고령화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제도 변경의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데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선진국들의 고령화 단계별 소요기간을 볼 수 있는데,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까지 증가하는데 소요기간의 평균이 약 71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14%에서 20%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6.4년인데, 우리나라는 8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현황 비교

| 국 가 | 도달년도 | | | 증가 소요연수 | |
|-----|---------|---------|----------|---------|---------|
| | 고령화(7%) | 고령(14%) | 초고령(20%) | 7%→14% | 14%→20% |
| 한 국 | 2000 | 2018 | 2026 | 18 | 8 |
| 일 본 | 1970 | 1994 | 2006 | 24 | 12 |
| 프랑스 | 1864 | 1979 | 2018 | 115 | 39 |
| 이태리 | 1927 | 1988 | 2006 | 61 | 18 |
| 미 국 | 1942 | 2015 | 2036 | 73 | 21 |
| 스웨덴 | 1887 | 1972 | 2014 | 85 | 42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러한 소요기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요기간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를 위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논의기간이 길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처럼 고령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초고령 사회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상의 지급률과 지급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데 10년이 걸린 사례도 있는 것을 볼 때, 고령화 관련 법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 증가로 인한 소외 및 역할 상실의 문제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노인 단독증가로 인한 문제들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18.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2년 현재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2035년에는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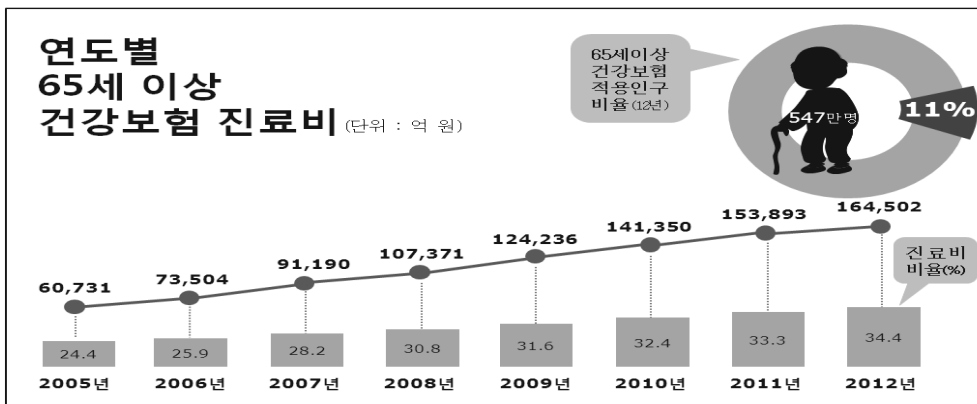


[그림 4] 노인가구 현황 및 독거노인가구 현황(보건복지부, 2012)

이와 함께 노인들의 소외감 및 역할 상실에 따른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역할 없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면서 소외를 겪을 경우 노인우울이나 자살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독거노인이 가족 없이 죽는 고독사 문제도 예상된다.

노인의 건강약화에 따른 요양 및 수발문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온다고 평가하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와 노인들의 요양 및 수발에 따른 사회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노인의료비 대상자 및 지출 현황(건강보험관리공단, 2013)

위의 [그림 5]에서 볼 때 2012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이상의 비중은 34.4%로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성 질환에 따른 장기요양 및 수발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요양등급 인정비율이 낮은 문제와 요양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및 자기부담금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제도의 정착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경제적인 문제점

부양비 증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덩달아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노인부양비라고 하는데, 2012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1로서 생산가능인구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약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표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 | 1990 | 2000 | 2012 | 2017 | 2030 | 2040 | 2050 |
|----------------------------------|------|------|-------------|-------|-------|-------|-------|
| 노년부양비 ¹⁾ | 7.4 | 10.1 | 16.1 | 19.2 | 38.6 | 57.2 | 71.0 |
| 노령화지수 ²⁾ | 20.0 | 34.3 | 77.9 | 104.1 | 193.0 | 288.6 | 376.1 |
|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³⁾ | 13.5 | 9.9 | 6.2 | 5.2 | 2.6 | 1.7 | 1.4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사회보장비용의 지출 증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표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인 2005년의 경우 수급자가 70여만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18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단위 : 명, %)

| | 합 계 | 노령연금 ¹⁾ (퇴직연금) | 장애연금 (장해연금) | 유족연금 | 연금수급률 ²⁾ |
|---------|------------------|------------------------------|----------------|---------------|---------------------|
| 2005 | 703,508(100.0) | 635,190(90.3) | 3,911(0.6) | 64,407(9.2) | 16.1 |
| 2010 | 1,606,024(100.0) | 1,420,822(88.5) | 9,607(0.6) | 175,595(10.9) | 29.5 |
| 국 민 연 금 | 1,428,414(88.9) | 1,265,781 | 8,847 | 153,786 | 26.2 |
| 공무원 연금 | 155,777(9.7) | 135,117 | 741 | 19,919 | 2.9 |
| 사 학 연 금 | 21,833(1.4) | 19,924 | 19 | 1,890 | 0.4 |
| 2011 | 1,800,167(100.0) | 1,585,755(88.1) | 10,775(0.6) | 203,637(11.3) | 31.8 |
| 국 민 연 금 | 1,605,959(89.2) | 1,417,187 | 9,899 | 178,873 | 28.4 |
| 공무원 연금 | 169,979(9.4) | 146,551 | 856 | 22,572 | 3.0 |
| 사 학 연 금 | 24,229(1.3) | 22,017 | 20 | 2,192 | 0.4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부(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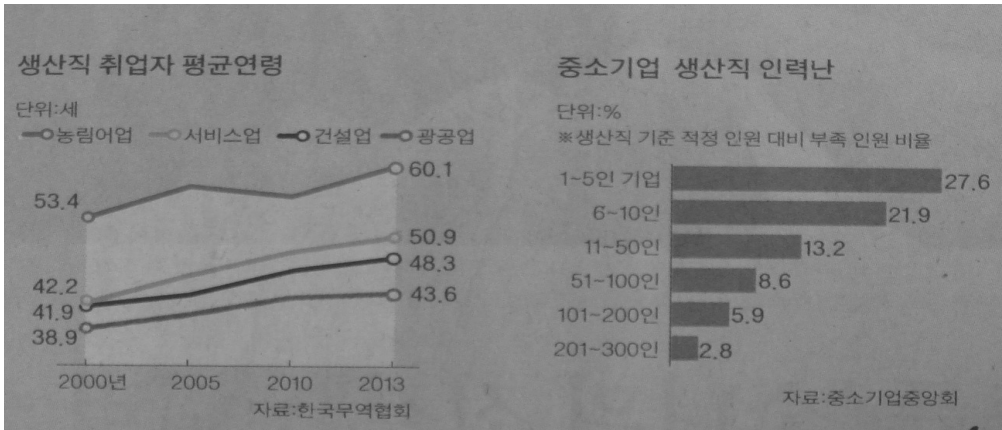
주 : 1)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각 연금 수급자 / 65세이상 추계인구) × 100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연금을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보다 연금을 받아야하는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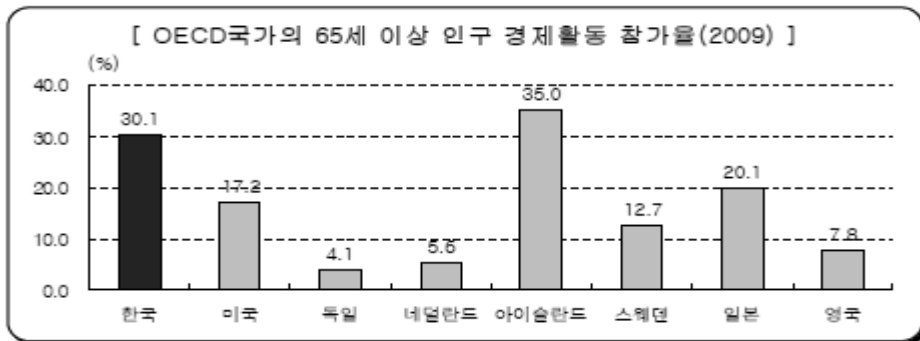
고령인구의 증가는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최근 통계자료들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작성한 생산직 취업자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는 2000년도에 평균연령이 53.4세에서 2013년에는 60.1세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건설업, 광공업 등 모든 업종 생산직 평균연령이 40대 초반이었던 2000년대에 비해 올해는 평균 47세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소기업체의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9.6%, 업체당 2.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생산직 취업자 평균연령 및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중앙일보.9월 9일자 경제면기사)

노인의 빈곤으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고령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은퇴이후에 퇴직금 및 연금생활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면서 내수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OECD국가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 본 것인데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54.4%가 나온 것을 볼 때, 현재의 노인들이 연금액수가 부족하고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2009년 OECD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통계청,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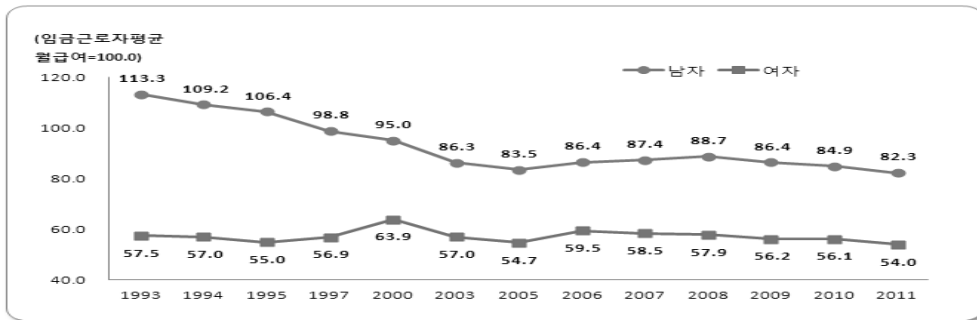
[표 6]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55~79세)

(단위 : %)

| | 계 | 장래근로 원함 | | | | | | | |
|--------|-------|------------|-------|------------|-----------|--------------|----------|----------|-----|
| | | | 소계 | 일하는 즐거움 | 생활비 보탬 | 사회가 필요로 함 | 건강 유지 | 무료 해서 | 기타 |
| 2012.5 | 100.0 | 59.0 | 100.0 | 36.5 | 54.4 | 2.0 | 2.1 | 4.8 | 0.2 |
| 남 자 | 100.0 | 72.5 | 100.0 | 40.3 | 50.5 | 2.7 | 2.2 | 4.1 | 0.1 |
| 여 자 | 100.0 | 47.2 | 100.0 | 31.4 | 59.6 | 1.0 | 2.0 | 5.7 | 0.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2012.

이외에도 노인들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경우 노인 임금근로자 평균 급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2011년을 기준으로 남자 노인의 경우 월평균 82.3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54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65세 이상 인구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여 추이(통계청, 2012)

4. 생각해 볼 문제들

지금까지 고령화의 정의 및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인 기준연령의 재조정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에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나와있지 않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5세인 것을 볼 때, 사회적으로는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연령이 67.8세로 나타난 것을 보면 65세를 신체적 외모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기준연령을 높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연장 문제이다. 현재 기업의 정년 연령은 5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면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한채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대이면서 사회적으로 역할이 없어서 소외되거나 우울해지는 노인들을 볼 수 있는데, 50대에 은퇴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60세까지 일정 기간동안 아무 소득도 없이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노년을 보낼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들이 은퇴함으로써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가 된 일본의 경우도 숙련된 제조업 근로자들이 조기에 은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것을 롤모델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면서 시간제 근로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서 노인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민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 추계들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수 및 출산율로만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민자들이 포함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통계청 인구통계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로 인해 고령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볼 때, 해외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을 활발히 받아들임으로서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넷째,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물러나는 존재가 아닌 연륜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도 자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의무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이라고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으려하기 보다는 가장 연장자로서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령화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인 것 같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정책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인구정책의 특성상 오랫동안 운영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최성재, 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통계청(2012). 고령자통계.
- 통계청(2012).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 중앙일보. 2013년 9월 9일 경제면 기사